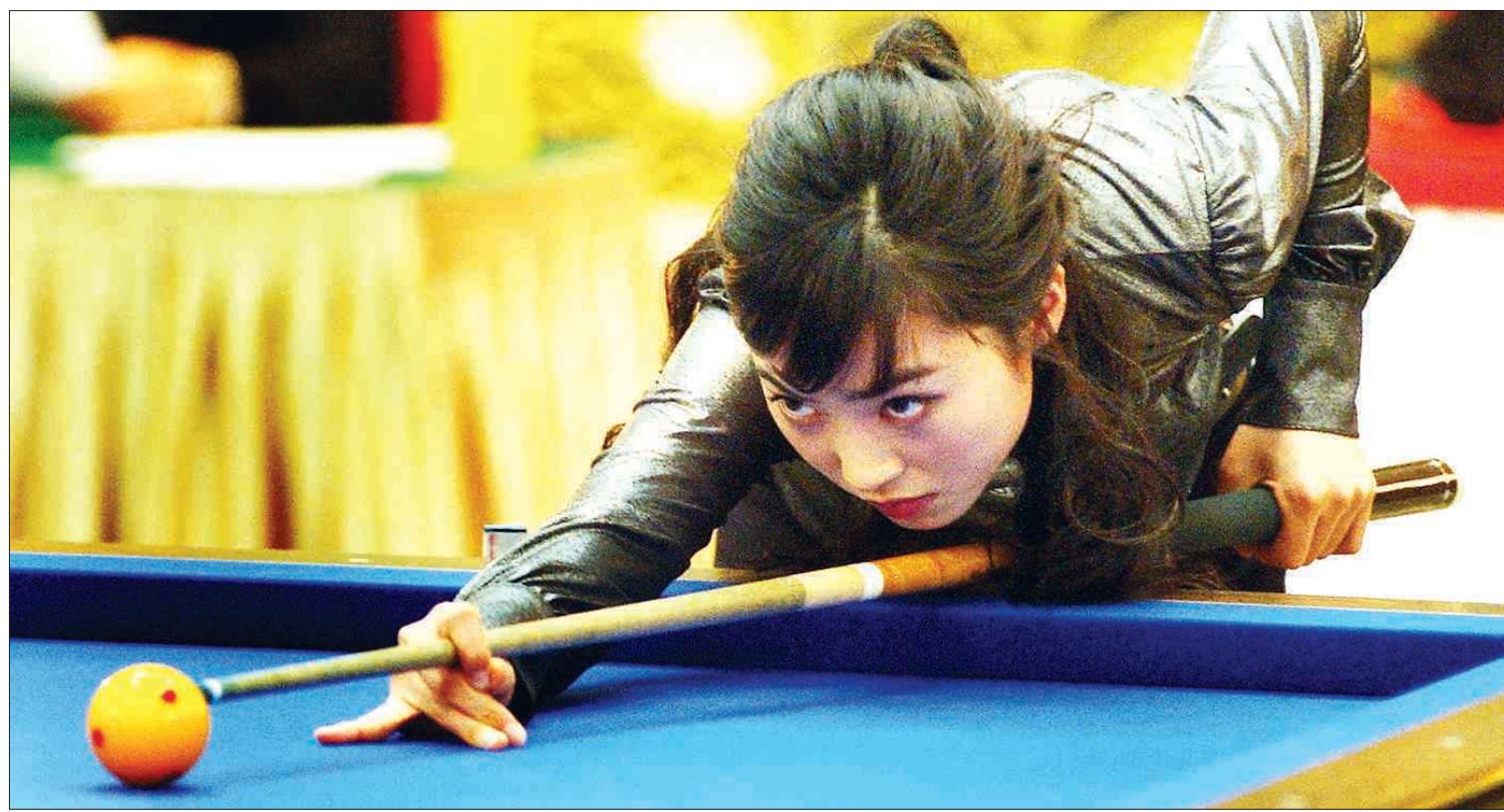


■ XTM 컵 참가 한국 온 완도 출신 '당구 얼짱' 차유람



완도 출신 '당구 얼짱' 차유람이 지난 11일 서울 독산동 노보텔에서 열린 'XTM 컵' 당구 대회서 공을 노려보고 있다.

/서울=위직봉기자 jrwi@kwangju.co.kr

"전라도 음식 실컷 먹고파"

완도 출신 '당구 얼짱' 차유람(20)이 미국 진출 후 보름만에 한국을 찾았다. 서울 독산동 노보텔에서 개최된 'XTM Cup Billiard 2007-King & Queen of Carom' 대회(스리쿠션)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앞서 10일 열린 포켓볼 'Women's Invitational' 예선에선 샐비 로라인(미국)을 꺾었다.

"미국에서도 전라도 음식만 생각나요. 싱싱한 완도 회가 제일 먹고 싶었습니다. 방한기간 중 해산물을 실컷 먹을 겁니다. 아빠가 인천에서 '완도회집'을 운영하시거든요."

차유람은 지난해 도하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한국 출신 세계 최고 포켓볼 선수 자넷 리와 경기를 펼치면서 주목을 받았다. '사이월드'에 개설한 홈페이지(www.cyworld.com/cyr0723)에 방문객이 51만 명이나 되고, 팬 클럽

**당구에 눈 뜬 광주는 제 2의 고향
미국 진출해 대회 우승 빠른 적응
자넷 리 있는 최고 선수 되는게 꿈**

도 생겨났다.

그녀는 광주가 제2의 고향이라고 한다. 당구장에 발을 들여놓은 건 지난 90년이지만, 광주에서 6개월 집중적인 교습을 받은 게 오늘의 밀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스승님"이라고 말하는 이장수(51·광주시장)에게 차유람은 한때 테니스에도 뚝 빠졌다. 완도초등학교 5학년 때 인천 윤전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지만, 1999년 제28회 전국소년체전에는 전남대표로 출전했다.

그녀는 지난 3월 15일 미국에 진출한 뒤 보름여 만에 필라델피아·바이킹투어 등 크고 작은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밀어치기'가 특기로 '검은 독거녀' 자넷 리를 있는 세계적인 포켓볼 선수가 되겠다는 게 꿈이다.

광주는 그녀에게 실력과 팬을 만들어줬다. 그녀가 다녔던 한 경정고 시 학원은 차유람의 인기가 치솟자 최근 시내버스 등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고 한다.

"저에게 허락없이 얼굴사진을 넣어 학원광고를 했어요. 하지만 그만 큼 내가 알려졌고, 팬들도 많이 생

긴 것 아니겠습니까? 모른 척 하고 놔뒀어요."

차유람은 한때 테니스에도 뚝 빠졌다. 완도초등학교 5학년 때 인천 윤전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지만, 1999년 제28회 전국소년체전에는 전남대표로 출전했다.

그녀는 지난 3월 15일 미국에 진출한 뒤 보름여 만에 필라델피아·바이킹투어 등 크고 작은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밀어치기'가 특기로 '검은 독거녀' 자넷 리를 있는 세계적인 포켓볼 선수가 되겠다는 게 꿈이다.

"미국으로 다시 출국하는 5월 10일 이전에 광주를 꼭 둘러보고 싶습니다. 저보고 '얼짱'이라고 말하는데, TV나 사진이 더 잘 나오는 것 뿐이고, 실은 얼굴에 자신이 없어 집에선 거울도 안 봐요."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나들이길 햇살

4월 14일
(음 2월 27일)



◇전국날씨

| | | |
|----|------|--------|
| 광주 | 구름조금 | 6~19°C |
| 포항 | 구름조금 | 7~17°C |
| 여수 | 구름조금 | 9~17°C |
| 구례 | 구름조금 | 6~19°C |
| 해장 | 구름조금 | 3~20°C |
| 전주 | 구름조금 | 3~19°C |
| 고성 | 구름조금 | 3~20°C |
| 순천 | 구름조금 | 5~19°C |
| 광진 | 구름조금 | 8~18°C |
| 전주 | 구름조금 | 5~17°C |
| 전주 | 구름조금 | 5~19°C |
| 전주 | 구름조금 | 5~19°C |
| 전주 | 구름조금 | 3~19°C |
| 전주 | 구름조금 | 5~19°C |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5m
면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5m
면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11:48 썰물<04:39
여수 밀물<06:51 썰물<00:16
13:00

▲해뜨 06:03 ▲해짐 19:04 ▲달뜨 03:59 ▲달짐 15:21
◇주간날씨



| 날짜 | 15(일) | 16(월) | 17(화) | 18(수) | 19(목) | 20(금) |
|-------|-------|-------|-------|-------|-------|-------|
| 날씨 | | | | | | |
| 최저/최고 | 7/18 | 10/16 | 6/18 | 7/18 | 6/18 | 7/20 |

따뜻한 주말 비오는 휴일

휴일인 15일 봄비가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15일 오후 한때 광주·전남에 비가 내리리겠다고 13일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4~10도, 낮 최고기온은 16~19도 분포를 보이겠다.

주말인 14일은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19도까지 오르고, 전남은 17~20도 사이에 분포하는 등 전날보다 5~

6도 높은 따뜻한 날씨가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에는 기온이 올라가 약간 더운 날씨를 보일 것"이라며 "일교차가 계속 커지는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중행 기자 golee@kwangju.co.kr

군부대서 탄환 폭발 6명 중경상

지난 12일 오전 10시40분께 경북 포항시 장기면 사격장에서 해병 모부대 화기중대 소속 부대원들이 K-4 기관총 사격훈련을 하던 중 수류탄 크기의 탄환 1개가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폭발했다.

이 사고로 유모(21)상병이 탄환과 편에 머리를 다쳐 분당 통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불명 상태며 나머지 5명도 팔·다리 등을 다쳐 대구 국군통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부대 측은 이번 사고는 부대원들의 사격연습 과정에서 발사대기 중이던 연발사격용 탄환이 갑자기 폭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대 측은 사고가 부대원들의 화기 취급 부주의의 아니며 탄환 불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탄환 제조

업체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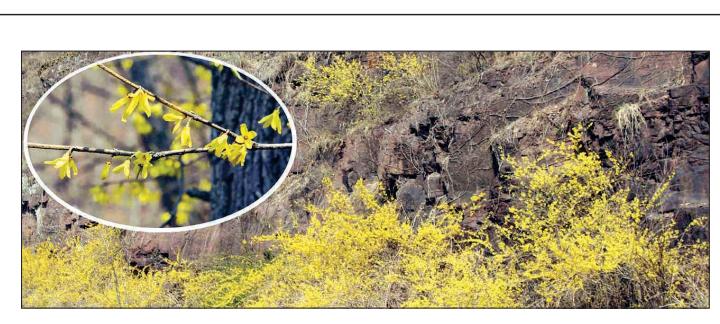
광주 월산동 주택가서

20대 성폭행 미수 도주

13일 새벽 5시19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한 주택가 방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침입, 잠자고 있던 박모(여·26)씨를 성폭행하려다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했다.

반항하던 박씨는 과한이 휘두른 흉기에 이마가 찢어졌으나 다행히 큰 상처는 입지 않았다.

경찰은 박씨의 진술을 토대로 20대 초반의 키 168cm 가량의 남자를 고高素质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멸종위기 산개나리

국내 자생지 발견

산림청 국립수목원 연구팀이 경북 의성군에서 멸종위기 식물이자 특산식물인 '산개나리'(산진)의 국내 자생지를 발견해 학

계에 관심을 끌고 있다.

풀푸레나무과(科)인 산개나리(Forsythia saxatilis Nakai)는 산림청 지정 희귀멸종 위기식물 166호로 등록돼 있으며 현재 전북 임실의 산개나리 군락이 천연 기념물 제388호로 지정돼 있다.

/연합뉴스

광주 한 사립고등학교

불법 찬조금 '말썽'

가정통신문 발송

광주지역 한 사립고등학교가 일부 중산층 학부모들을 상대로 불법 찬조금을 걷어 말썽을 빚고 있다.

13일 광주 S여고 학부모 등에 따르면 이 학교는 도서관 열람증 책걸상과 학생 휴게실 등 각종 기자재 구입을 위해 기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학교운영위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을 지난 9일 일부 학부모들에게 발송했다.

가정통신문에는 학교 명의 은행 계좌 번호가 적혀있다.

가정통신문 발송 대상은 1~3학년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등을 참고해 경제적 여력이 있는 중산층 학부모들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한 반에 10~15명을 선정해 학부모 300~400명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학교 측은 15명의 학부모로부터 600여만원을 모금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걷자고 합의해 일부 여유 있는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냈다"며 "법적으로 문제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부모들에게 돈을 걷는 것은 명백히 불법 찬조금"이라며 "같은 돈을 모두 학부모들에게 되돌려 주라고 해당 학교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국대학생기자 hwangtae@kwangju.co.kr



평생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636 최대단지!

| 풍경천 · 호수공원 조망의 최고 일자 |

수원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 367-9000

신임 고법 부장판사들

재산 평균 10억원

을 2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법관들의 재산은 대부분 10억원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신임 고법 부장판사 18명의 재산 등록 내용에 따르면 조경란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67억7천1만원을 신고해 1위를 차지했다.

신임 고법 부장판사 중에서는 5억~10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법관이 6명, 10억~13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8명이 차지했다.

최근 서초동에 사무실을 낸 임 전 차장은 본인 명의의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 토지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원지동 일대 전답이 14억4천900만원, 서초동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택과 오피스텔이 41억3천7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현직 검사 중에는 이재원 안산지청장이 26억9천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안창호 광주고검 차장이 20억9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새로 신고한 전·현직 검사들은 6억~10억원 미만이 3명, 10억~15억원 미만 4명, 15억~20억원 미만 3명, 20억원 이상 4명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오후 해상충돌 사고 후 부산항 2부두로 예인된 '코비호'.

/부산일보=정중희기자 jjh@busanilbo.com

한·일 고속여객선 '코비'

고래(?)와 충돌... 28명 사상

12일 오후 6시23분 부산 태종대 남동쪽 14마일 해상에서 무언가에 부딪혀 1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친 '코비' 고속여객선 사고가 고래에 의한 것인지 관심이 쏟아진다.

부산 해경은 "사고선 선장이 '부딪힌 물체가 고래인지 다른 부유물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며 고래에 의한 사고로 설립리 단정짓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나 2004년 이래 고속여객선이 바닷속 물